

도내 35개 기업, 상장법인 등록

전주상의, 조사결과... 전년 대비 3개사 증가, 전국 비중 1.3% 불과

기업의 상장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행되며 상장기업은 일정한 주기로 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공시해야 하는 만큼 투명한 경영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용이해진 자금조달 여건은 기업 성장에 기폭제가 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장법인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8일을 기준으로 총 35개의 기업이 상장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대비 코스닥 상장법인이 2개사, 코넥스 상장법인이 1개사 증가했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군산시에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8개사, 완주군 7개사, 전주시 5개사, 정읍시 3개사, 장수군·김제시·부안군 각각 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품 관련 회사가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

기·전자 8개사, 자동차·운송업 4개사, 금속·기계 4개사, 음식료 4개사, 금융업 3개사, 섬유·의복 1개사, 종이 관련 1개사, 플라스틱 제조업 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완주군의 정전기 보호소사, 센서, 전력반도체 및 고주파 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주)시지트로닉스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정읍시의 천연물 소재 개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바이오덴(주)는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반도체 소재 및 LED 조명 전문기업 (주)알에프에미는 올해 대전광역시에서 완주군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총 2,685개의 상장법인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있고, 그중 전북은 1.3%에 불과해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상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개에 관심을 가지고 상장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경

롯데백 전주점, 개점 20주년 감사 축제

고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쇼핑 혜택과 이벤트 준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은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점 20주년 감사 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채로운 개점 이벤트와 역대급 쇼핑 찬스를 준비했다.

우선 백화점 패션·리빙·식품 매장의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하여 200여 종류의 즐 서기 이벤트 상품들을 만나 볼 수 있고 참여 브랜드에 한해 구매 금액대별 최대 10%상당의 롯데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지하 1층 식품매장 F&B 브랜드는 품목별 10~20%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는 코튼클럽(트라이엄프

등), K2그룹대전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행사 기간 중 방문 고객대 상 이벤트로는 5/1 첫날 20주년 기념 카스테라빙과 F&B한인쿠폰을 선착순 증정하며, 5/5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고객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 캐릭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강정구점장은 "개점 20주년 감사 축제 맞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참치 소비시대를 되살리면서 고객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북전주농협은 지난 26일,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소재 포도 농가에 일손돕기를 나섰다.

북전주농협, 영농철 맞아 포도 농가 일손돕기 앞장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26일,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소재 포도 농가에 일손돕기를 나섰다.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이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손돕기에 나선 북전주농협 임직원 10여명은 이날 포도순 따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포도 농가는 "농번기 일손 구하기 힘들때 이렇게 도움을 줘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올해는 풍년농사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매년 수차례 시간이 되는데로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농가에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라며 "농가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2차 무료 기술나눔, 지역 상생과 ESG경영 실천

전북개발공사, AI 활용 전자문서·민원 자동배부 기술 등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무료로 나눠주는 2차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차 기술 나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 IT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정보기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나눔된 주요 기술로는 △GPT-4 연계 자체 개발 웹사이트통합정

보시스템 with AI △AI 활용 전자문서, 민원 자동배부 △결제문서 자동스크래핑 △사규·지침 챗봇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추출 프로그램 등 최신 AI 기술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기술나눔을 통해 지역 IT기업의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민간 간 상호 협력

과 지식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기술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민관이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IT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LH전북, 소양면 완주황운 국민임대주택 80호 입주자 모집

내달 20~22일 인터넷·모바일앱 접수... 22일 현장 접수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88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완주황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5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완주황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마을쟁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마을 주변 지역정비를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80호로 전용면적 29㎡ 34호(주거약자용 4호

포함), 33㎡ 24호, 46㎡ 22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 중(공정률 58%)으로 내년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은 완주군 소양면에 건설되는 최초의 아파트로 전주역은 차량으로 10분, 전주시청은 20분, 완주일반산업단지와는 3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전주 생활권이며,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하나마트, 병실유치원 및 초·중학교 소양천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으로, 현장접수는 5월 22일 완주군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공급일정, 임대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하림, 신제품 '도넛치킨' 2종 출시

(주)하림이 귀여운 도넛 모양으로 맛과 재미를 모두 잡은 신제품 '도넛치킨' 2종 도넛치킨 오리자널과 도넛치킨 치즈코코를 선보였다.

'도넛치킨' 2종은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 순살에 흑미, 현미, 밥쌀 등 곡물을 입혀 튀겨낸 제품이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도넛 모양으로 두툼하여 한 입 베어 물면 곡물 토피링과 튀김 옷의 바삭함, 닭가슴살의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져 맛과 식감이 풍성하다.

'도넛치킨 오리자널'은 곡물의 고소한 풍미와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은 닭가슴살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맛이 일품이다. '도넛치킨 치즈코코'는 고기 반죽에 큼직한 체다치즈를 넣어 깊은 풍미를 더했다.

조리법은 간단하다. 190℃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냉동 상태의 제품을

그대로 넣고 10분 조리 후 뒤집어 추가로 5분 익히면 맛도 비주얼도 훌륭한 도넛치킨이 완성된다. 적당히 간이되어 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만들 때 활용해도 좋다.

신제품 '도넛치킨' 2종은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하림몰(www.harimall.com)과 전국 이마트 매장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림 마케팅 관계자는 "구매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펀서머(Fun+Consumer)' 트렌드에 맞게 맛은 물론 재미까지 고려한 신제품을 선보였다"며 "주부들은 물론 색다른 먹거리를 찾는 MZ 세대에게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